

정리하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혁명당 건설!

혁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특보

발행일 : 2011년 10월 22일
발행처 :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3가 70번지 3층
블로그 : blog.jinbo.net/wrp

99%의 분노 - "자본주의를 없애라!" 반MB, 반신자유주의로 투쟁을 제한하지 마라!



박원순 승리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민주노총 지도부

“자본주의를 없애라!”, “은행과 기업 권력을 깨부셔라!” “혁명이 시작되었다.” 10월 15일 분노의 함성이 전 세계의 도시들에서 울려 퍼졌다. 1% 부자들과 자본가들은 배를 불리고 99% 노동자 민중들이 위기의 고통을 죄다 뒤집어쓰는 이 체제! “점령하라”는 기치 아래 거리로 나선 대중들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 고통의 근원이라고 정확히 지목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은행과 기업 권력을 깨부셔라!”

씩어문드러져서 혁혁대는 자본주의가 내뿜는 사멸의 단말마가 온통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숨통을 혁명으로 가장 빠르게 끊어낼 때만이 이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을 끝장낼 수 있음을 대중들은 이미 깨우치고 있다.

자본가 정부들이 병든 자본주의를 살리려고 천문학적 인 재정을 쏟아 부어 1% 금융자본가들과 재벌 대기업들을 살찌우고 99% 노동자 민중들에게 위기를 전가하고 있는 것을 평범한 대중들도 모를 수가 없다. 저 탐욕의 1%를 위한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구하려고 긴축과 복지 축소,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실업과 물가폭등으로 노동자 민중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데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는가. 나아가 이 체제의 권력이 금융자본가들과 재벌 대기업들에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

래서 이 권력을 깨부수는 혁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거리에 나선 99% 누구도 혁명을 낮설게 여기지 않고 있다. 2011년 온 대륙과 전 세계가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지금 자본주의를 깨부수는 혁명에 거리감을 느끼겠는가.

‘자본주의 반대는 안 된다. MB만 반대하라’?

저들 1% 말고 혁명을 두려워하는 자 누구인가? 분노 스텝계도 지금 노동자운동의 기존 지도부들이 앞장서서 혁명을 반대하고 있다. 99% 대중들이 자본주의에 분노의 화살을 쏘으며 “자본주의를 없애라!”고 외치고 있는데 개량주의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반대’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을 제한하려 있다. 또 자본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탐욕스런 금융자본주의가 문제라며, ‘착한 자본주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금융자본과 재벌대기업을 몰수 국유화하여 “은행과 기업 권력을 깨부수자”는 것에 반대하고, “금융 통제”와 “금융공공성”, “재벌개혁”을 내세워 병든 자본주의를 건강한 자본주의로 되살리자며 혁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개량주의 진보정당과 노조관료들은 대중들이 반자본주의 전선으로 달려가려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MB 전선으로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 민중들을 민주당 국참당 등 자본가 정당의 공무니로 만들고자 ‘자본주의 반대는 안 된다. MB만 반대하라’고 말한다.

대중들이 재벌의 권력을 깨부수자며 거리와 광장을 점령하려고 하자 이들 개량주의 세력들은 “박원순의 승리는 우리의 희망”이라며 ‘점령하라’ 대신에 ‘투표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것도 재벌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오면서 재벌들과 유착해 온 박원순에게 투표하라고 말이다.

‘점령하라’ 對 ‘투표하라’

총선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이들 개량주의 세력들은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반자본주의 투쟁을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반MB 야권연대로 돌려놓으려고 더욱더 혈안이 되어 있다. 기성 정치권 내에서 선거로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1% 부자들과 자본가들의 체제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선거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무너져가는 자본주의 체제 살려서 ‘건강하고 착한 자본주의’ 만들겠다고 노동자 민중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가 가하는 고통을 끝장내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이 굴절, 좌초되지 않고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개량주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은행과 기업 권력을 깨부수고 자본주의를 없애기 위한 혁명의 길로 전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하자. **혁명**

우리 99%는 요구한다

- △ 모든 종류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 6시간 노동제를 통한 실업 해소!
- △ 부유세 도입! 누진세 도입!
- △ 물가 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 △ 무상주거!
- △ 등록금 폐지, 대학 무상교육 전면 실시!
- △ 은행 및 금융사 국유화 /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노동자통제!
-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희망버스운동의 전진만이 국회권고안을 박살내고 정리하고 철회 기조를 세울 수 있다.

5차 희망버스의 출발을 앞둔 시점에 느닷없이 발표된 국회권고안은 내용을 떠나서 재빠른 합의와 발표 시기를 볼 때 누가 봐도 희망버스의 기세를 꺾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치졸하기 짝이 없다.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히다. 그나마 원직복직 권고는 고사하고 앞서 금속노조와 채길용 집행부가 불쑥 던졌던 “6개월 재고용”안에도 못 미치는 안이다.

기만적인 권고안과 야권연대

민노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러한 기만적인 안을 내놓고는 자화자찬하며 갖은 생색은 다 내고 나아가 김진숙과 정투위 동지들에게 이 이상 나올 수 없는 최대의 안이라며 받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보수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마저 덩달아 그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 이러한 전 방위적 압박에 10월14일 치러진 선거에서 높은 지지와 성원으로 당당하게 당선된 정투위 대표 차해도 신임집행부는 결국 국회권고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한다는 발표를 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돌아보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희망버스운동이 발전하자 슬그머니 숟가락을 올리며 운동의 성과를 가로채 제도권으로 가져가려고 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연대 세력이야 말로 기만적인 권고안 마련의 일등공신이다. 특히 금속노조는 강력한 대중투쟁 건설 대신 교섭에 안달이 나 수세적으로 지레 무급순환휴직과 6개월 재고용안을 던져 이후 교섭을 발목 잡히게 한 장본인이다.

희망버스 평가 포럼 - 다시 투쟁의지와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가 돼야

처음 희망버스는 소금 꽃 김진숙을 살리자고, 무자비한 정리하고 칼날에 속절없이 잘려나간 한진 조합원들을 구하자고 시동을 걸었다. 이후 계속된 희망버스에 올라탄 대중들은 한진 투쟁을 거치며 계급의식과 연대의식을 획득하고 단련시키며 정리하고,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전 계급적, 사회적 요구로 제기하며 씹 없이 달려왔다.

이러한 희망버스 운동의 전진은 조남호를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러들이고 국회권고안을 수용해 교섭창구에 앉게 하고 민주노조 차해도 집행부를 세우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희망버ست투쟁으로 얻어진 이 같은 성과의 기반에는 희망버스의 발전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차해도 집행부와 정투위 동지들은 희망버스 대중들의 투쟁의지를 믿고 권고안을 거부하고 공세적인 정리하고 철회 기조로 교섭을 요구해야 했다.

한편 김진숙과 크레인 동지들의 신변안전 문제와 피로도, 고립감과 같은 저간의 사정으로 집행부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며 압박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버스운동의 투쟁결의와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마침 6차 희망버스를 힘차게 출발시키기 위해 11월 5일 희망버스 기획단에서 희망버스 평가 포럼을 대중적으로 기획한다고 한다. 포럼을 넘어 희망버스 대중총회로가

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지만 어쨌든 이 포럼은 반드시 대중들의 폭넓은 참여와 논의를 통해 올바른 평가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대중들의 투쟁의지와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쌍차에도, 재능과 콜트콜텍에도 연대하는 투쟁으로!

이를 바탕으로 출발하는 희망버스는 한진의 정리하고 철회를 위한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2년 내 복직이라는 사회적 합의 대타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쌍차에 연대하는 투쟁으로, 각각 1400일을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재능과 콜트콜텍에 연대하는 투쟁으로, 해고와 차별이라는 이중의 굴레에 고통당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연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희망버스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한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넘어서야만 이후 투쟁으로 확대 발전 할 수 있다. 정리하고 철회라는 당면의 요구를 쟁취해야만 정리하고 철폐 운동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다. 대중투쟁의 힘을 믿어야 한다.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에 자본의 고통전가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대중투쟁이 분출 되고 있다. 아랍혁명에서 시작된 혁명적 파고는 유럽을 건너 미국의 월가를 흔들며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데 까지 나아가고 있다. 희망버스운동이 나아가고자 하는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투쟁을 더욱 힘차게 밀어가지! **혁명**

전 세계적인 점거시위와 대중총파업!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대항하는 전 세계적인 점거 시위와 대중 총파업이 연일 전개되고 있다. 10월15일 ‘세계를 점령하라’ 시위는 미국과 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 80여 개국, 1,500여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됐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 일선에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20만 명의 시위대가 베를루스코니 총리 퇴진 시위를 벌였고, 스페인에서는 6만 명이 실업 해소와 일자리를 요구하며 다시 광장을 점거했다. 19일 그리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대량해고와 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48시간 총파업을 벌여 전국을 마비시켰다.

2008년 미국 자본주의 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고통과 이에 대한 분노가 전 세계적인 연대점거와 총파업, 비공인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중국 노동자들의 10만 건의 비공인 파업과 시위, 베트남에서 400여건에 달하는 파업, 방글라데시 섬유노동자의 파업 등이 아시아에서 전개된 바 있다. 이어 아프리카와 중동혁명, 유럽 총파업과 청년학생들의 점거투쟁, 미국의 월가 점령투쟁은 바야흐로 혁명의 불길이 전 세계에 붙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노동자계급도 대중투쟁을 가로막는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을 딛고 파업에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촛불투쟁, 쌍용자동차 공장점거 파업, 희망버스 투쟁 정신을 확산시키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1% 부자를 위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99%가 주인되는 노동해방 세상을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혁명**

출범식

가칭)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출범식을 갖습니다.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노동자혁명당 건설을 위해 함께 힘차게 투쟁합시다.
- 날짜 : 2011년 10월 29일 토요일
- 시간 : 늦은 5시
- 장소 : 만해NGO 교육센터(동대입구역)

